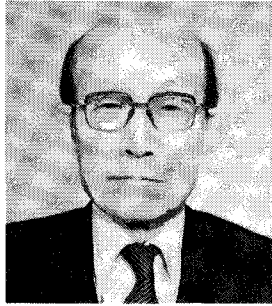




UR 협상과 한우가 나갈 길

# U.R 쇠고기 협상의 종장(終章)은 패권(霸權)



황 영 구  
본회 고문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국가와 민족의 역사적인 사실은 민족정기의 창달과 국가발전 과정에서 실증적으로 국민들의 자성과 참회, 자위와 자만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영원히 보존 활용되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선진국의 제도와 강자의 주장이 승리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요즘 같은 세계적인 무한 경쟁시대로의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우리가 거부한다고해서 피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에 가트(GATT) 회원국이 되면서 가입당시 미국과 같은 수입의무면제를 받는 웨이바(Waiver) 품목이 없는 상태에서 1986년 9월

제8회 다자간 무역 협상인 U.R 개시 선언후 작년 12월 15일 7년여의 산고끝에 U.R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지구는 한개의 시장인 세계화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한 냉엄한 국제화 개방화 과정에서 1989년 GATT의 우리나라가 BOP졸업이라고 통보를 받으면서 1997년까지 농축산물의 전면 개방 결정이 있기까지 U.R 협상에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으로인하여 농민의 엄청난 비탄의 여론이 일자 1990년말 브루셀의 농상회의에 대비하여 금년 전반기까지는 관계부처 간에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농축산업의 구체적인 E.C, 미국, 일본등과 같이 입법조치에 의한 장기 보호육성계획도 없어 1990년 전반기부터 정부의 U.R 대책 공청회 기타 보도기관·농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10여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쌀, 쇠고기, 보리 등 15개 농축산물의 N.T.C 품목을 정부주도하에 농민의 합의를 얻어 “브루셀” 각료 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관계당국이 발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는 해명이 없었다가 3년여가 지난 1993년 11월 중순에 와서 쌀, 쇠고기 등 3~4품목은 절대로 수입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으나 동년 12월 15일 U.R 협상의 결과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GATT의 관세화 조치에 따라서 우리정부가 제출한 N.T.C 품목은 U.R교섭의 정신과 원론에서 상대국들의 이해를 얻기에는 과분하였던 요구로서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닌지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세계 여러나라 주부식의 농축산물 전체 작목수는 60에서 70개내외이므로 우리나라가 제시한 N.T.C 15개 품목은 25%에 가까운 품목수이다.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가 제시한 것과 같이 주요한 농축산물 15개 품목을 개방화에서 예외로 인정한다며는 개방에 따르는 관세화조치에 의미가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요구한 N.T.C 품목은 국제정보에 어두운 허구였음이 증명되었다.

그와 같은 협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는 모든 일에 준비없이 임했다가 막판까지 밀린 다음에야 새삼스럽게 법석을 떨며 허둥대기 일쑤다. 이번의 쌀 개방 파동에서 쇠고기 협상이 그랬다. 정부는 속수무책이면서 농민을 위시하여 모든 국민에게 농축산업은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요 국토의 보존과 자연환경 부존자원을 보호하는 국민생존의 절대성을 설득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소홀하였다.

미국은 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집착을 역이용하여 쌀을 공격하는 척 하면서 쇠고기를 공략하는 수법에 의하여 식량 패권주의라는 원대한 힘으로 몰아붙이면서 실리를 차릴대로 차리는 협상태도였기 때문에 가뜩이나 준비도 시원찮은 우리가 촉박한 시간에 쫓기면서 감당할 협상의 재간이 부족하였을 것이다. 미국은 대표적인 선진국형 농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로서 농무부의 농축산업 수입통계를 분석하여 보면 협상에서 쇠고기를 우선 하여야 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다.

미국의 농축산업 통계는 농장의 현금수입으로 축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U.R 쇠고기 협상은 양국간의 농업구조가 식생활 유형에 배경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화본과식물인 쌀이 주작물이요 미국은 반추동물인 소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축이라는 차이에 기인하는 미국의 협상 전략에 우리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협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굴욕적인 양보를 하였다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미국의 식량에 대한 패권주의와 국제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구체적인 대응책의 결여에 기인한다.



업과 경종농업으로 분류하여 발표한다. 1991년 통계는 축산에서 총액 86,746백만불중 소와 관계되는 수입이 57,746백만불로서 66.6%이며 경종 수입총액 80,547백만불과 축산의 총액 86,746백만불을 합제한 167,293 백만불에 대한 소의 수입이 34.5%로서 축산과 경종수입에서 소의 수입이 절대로 우위에 있다.

그와는 반대로 쌀은 1991년 1,166백만불로서 경종 수입의 1.5%이며 축산과 경종수입 합계에서는 0.7%이다. 소와 쌀을 비교하여 보면 쌀은 소에 대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현실적인 미국의 농업구조에 소가 대종인 작목의 위치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쇠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백인종들이 부존자원의 주체성을 활용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확고한 민족의 문화요 생명산업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U.R 쇠고기 협상은 양국간의 농업구조가 식생활 유형에 배경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화본과식물인 쌀이 주작물이요 미국은 반추동물인 소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축이라는 차이에 기인하는 미국의 협상전략에 우리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협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굴욕적인 양보를 하였다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미국의 식량에 대한 패권주의와 국제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구체적인 대응책의 결여에 기인한다.

1997년까지 개방하기를 결정하였던 쇠고기 개방을 2000년까지 연기하면서 쿼타제인 수입 의무량을 받아 들인 협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쿼타량에 있어서 1994년 1,094천M / T를 2000년에 2,254천M / T(212%)의 증가를 인정하였으며 현재 축산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수입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액인 make-up이라고 하는 비율을 1994년 95%에서 2000년에는 영으로 하여 쇠고기수입으로 피해를 보는 국내 축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축산기금의 수입원을 중단하게 하였고 SBS 동시 입찰매매의 비율을 1994년 20%를 2000년 70%로 350%를 확대하였다.

그외에 관세율 만을 1994년 20%를 1995년에 43.6%로 23.6% 인상한 후 2000년 까지 그 비율이 낮기는 하나 연도별로 감액하여 41.6%로 합의하였다. 그러한 쇠고기 협상의 합의내용은 정부가 능동적으로 국내의 쇠고기시장을 개척하여서 2001년부터 쇠고기의 수입을 개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금년부터 7년간 한우와 낙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한다 하여도 관세상당치가 아닌 단순 관세 40% 내외로 국제적인 경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촌사회구조의 현실적인 여러가지 조건들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쿼타량의 2000년의 2,254천M / T은 한우도체중으로 환산하면 약 100만두의 해당하는 물량이다.

한우 100만두를 현시세 두당 200만원으로 산출하면 약 2조원이 실질적으로 한우를 기르는 농가의 소득 감소를 강요하는 것이며 반대로 수입쇠고기의 톤당 수입가격을 평균 3,800불로 하여 2000년후에 2,254천M / T의 합계 외화 약 855백만불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불리하고 불합리한 쇠고기의 협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협상의 방법과 기회는 없는지 염려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이 40% 이하를 떨러진 현실에서 인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수조건이며 에너지원인 먹고사는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국내문제가 아니라 세계화, 개방화의 전형적인 국제문제임으로 그 해결방법으로 국내와 국제의 복합적인 구도와 사고속에서 산업적으로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조

직과 지역통합체 및 국제조직을 연결하고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 체제의 사회적인 분권조직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근대 국가조직이 추구하는 활동목표는 현재에서 장래를 전망하는 식량의 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학문·과학·기술의 선진국으로의 국가 경제발달과 농촌문화의 창달에 두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사회구조가 농축산업에서 공업, 서비스, 정보산업으로의 급속한 전환과 학문의 발달과 기술의 혁신이 가속화 한다 하여도 장기적으로는 지구의 부존자원인 공업원료는 유한하나 자연의 동식물중 식량을 생산하는 작물과 가축의 재생산성과 자연요소인 농립, 수자원, 태양열 및 공기는 무한하다는 것이다.

U.R 쇠고기 협상에 따르는 국내대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같이 한우와 낙농업을 보호육성하는 법적조치가 선행되어서 관계 양축농민들의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국제경쟁의 대상이 되는 생산비의 절감과 생산성 및 생산품 인 쇠고기와 원유의 품질을 향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국제경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전적인 개량과 사양관리의 환경 개선업무가 번식농가를 주축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는 물론이요 가축은 품종별로 외모·자질·품성 그리고 번식생리와 유전적인 원리와 법칙이 같기 때문에 품종별로 혈통, 외모, 심사 및 능력검정의 기록을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한우와 홀스타인 종을 사육하고 있는 번식농가를 중심으로 회원제도에 의한 등록단체와 업무를 조정활성화하여 한우는 현재 조직되어 있는 개량 단지등 지방조직을 강화하여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대부분의 개량 등록실무를 자치적으로 처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한우는 형태학적으로 체형, 모색등 자질의 중요한 외모상의 유전형질과 산육·성숙성과 같은 경제능력이 실용상 확실하게 후대에게 유전되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품종으로서 우리나라 자연환경에서 부존자원을 주체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양관리에 대한 적응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농경문화의 원조요 한민족의 반려자로서 주곡농업에서 나오는 농산부산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경종농업과의 상호 보완성의 공고한 유대를 가지고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자원으로서 국민이 선호하는 양질의 쇠고기를 능동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귀중한 품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경쟁의 가능성이 있는 한우고기의 품질 향상 방법은 유전적 번식생리 기능의 순서에 따라 혈통등록을 원부로 하여 한우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의 종합적 결과가 외모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모는 단순한 크기나 외형뿐이 아니고 자질, 품성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개체별 능력이 자신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후대생산 자축에 유전이 되어서 개량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한우와 같은 고기소에 있어서는 전신운동의 골격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 근육이며, 그 근육이 쇠고기이기 때문에 그 상태의 우열이 외모에 나타난다는 것이며 그것은 육량뿐이 아니고 외모상의 특징으로서 자질과 함께 안면과 체형전체의 품위가 유전적으로 육질과 관련성이 깊으며 지방교합의 유전적 요소는 고기소의 품종과 계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하며 근육간 지방 및 피하지방의 지방세포의 지방 합성 능력에는 품종간의 특성이었으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

“

한우는 우리나라 자연환경에서 부존자원을 주체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양관리에 대한 적응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농경문화의 원조요 한민족의 반려자로서 주곡농업에서 나오는 농산부산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경종농업과의 상호 보완성의 공고한 유대를 가지고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자원으로서 국민이 선호하는 양질의 쇠고기를 능동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귀중한 품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

므로 한우는 그 품종내에 존재하는 유전형질의 변이를 포착하고 선발에 의하여 우량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들 Homo 상태로 유지하면서 후대자우에게 강하게 전달하는 계통을 유전적으로 선발조성하여 한우의 양질 쇠고기를 브랜드(Brand)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양질의 한우고기의 등급을 실물 사실대로 판정하기 위하여는 일본과 같이 육질을 현재 3등급을 5등급으로 세분화하여서 판정의 관능과 주관을 배제하고 상위 등급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한우와 홀스타인종 개량의 주체는 농민이요, 생산의 모체는 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국적인 유전적 개량의 효과로 번식생산을 양축농가는 물론이요, 전체 한우와 홀스타인 우군의 체일성을 도모하여 농가의 수익성과 자우 가격이 보장되도록 U.R 파고대대책이 전국에 169개를 조성하였던 협동축산단체사업과 외국의 육용우 11개 품종의 18만두를 분별없고 무계획적인 수입과 같은 실패한 사업의 과거 전철을 답습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국민협동으로 신중강구되어야 한다.